

인구 20명 중 1명 '전라도 외국인'…전남, 5% 시대 열렸다

2024년 외국인주민 광주 4만 8000명·전남 9만 6000명 거주
광주·전남 1년새 1만명 증가…전남 증가율 2년 연속 전국 최고

전남 외국인주민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전남 외국인주민의 전체 인구 대비 비중도 처음으로 5%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사는 외국인주민은 광주 4만 7728명·전남 9만 5832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9%(869명)·10.5%(9103명) 증가했다.

광주·전남 외국인주민은 2023년 13만 3588명에서 1년 새 14만 3560명으로, 1만명 가까이 늘었다.

전남 외국인주민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 5.0%의 2배에 달했고,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중은 광주 3.3%·전남 5.4%, 전남 외국인 비중이 5%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주민의 체류기간별로 보면 2년~3년 미만 머무른 외국인이 2배(2161→4526명) 많아졌고, 1년 미만 체류한 외국인은 17.6%(7540→6213명) 감소했다. 10년 이상 머무른 외국인은 12.5%(4118→4633명) 증가

했다.

전남에서도 2년~3년 미만 머무른 외국인이 3.7 배(2474→9082명) 급증했고 10년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은 15.8%(7066→8181명) 늘었다. 1년 미만 체류 외국인은 1만 7738명에서 1만 8817명으로, 6.1%(1079명) 증가했다.

다문화가구는 광주·전남에서 1년 새 1600가구 넘게 늘었다.

전남 다문화가구는 5만 4073가구로, 전년보다 2.4%(1256가구) 증가했고, 광주는 2만 5903가구에서 2만 6301가구로 1.5%(398가구) 늘었다.

광주·전남 다문화가구 증가율은 전국 평균 4.0%를 밀쳤고, 인천(7.0%), 경기(5.4%), 충남(5.1%) 등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다문화가구는 귀화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부부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외국인주민의 18세 이하 자녀는 광주 7885명·전남 1만 7191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9%(149명)·1.0%(174명) 늘었다. 외국인주민 자녀 증가 폭은 점차 완화하면서 2024년 광주·전남 모두 1%대를 나타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나에게 맞는 일자리는 어디

11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드림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이 기업 부스에서 상담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설 연휴 '주차·교통지옥' 걱정 뚝

광주시, 특별교통대책 시행…시내버스 증차·주차장 무료 개방

광주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연휴 기간 특별 교통 대책을 가동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4일부터 18 일까지 단시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 안전과 교통 편의 증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 기간 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교통대책 상황실을 꾸려 실시간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방침이다.

광주송정역과 광천터미널, 성묘객이 찾는 영락 공원 등 주요 혼잡 지점에 공무원과 경찰, 모범운전자회원 등을 집중 배치해 교통 지도와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성묘객을 위해 시내버스 운행 노선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설 당일인 17일에는 상무지구와 종합버스터미널

널, 영락공원을 잇는 '518번' 버스가 평소보다 30 회 증회 운행한다.

동구 월남동에서 북구 태령동을 오가는 '지원15 번'은 영락공원을 거치도록 노선을 변경하고,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종점인 '용전86번'은 영락공원 까지 연장 운행한다.

시는 연휴 기간 동구 대인시장, 서구 양동시장, 남구 무등시장, 북구 말바우시장,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 등 지역 내 1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시장 인근 주차장을 포함해 관공서와 공공기관 주차장 280 여 곳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연휴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나 공공데이터 포털, 카카오맵, 네이버맵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광천·상무선' 도시철도 구축 '청신호'…교통대란 해소 기대

국토부 교통위 심의 통과…상무역~광주역 7.78km 구간 연결

광주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건설 사업(광주일보 2025년 12월 29일자 1면)이 정부의 최종 심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로써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중교통 중심의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실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광천상무선)이 최근 국토부 장관 소속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법적 행정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국토부는 조만간 최종 승인을 거쳐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광천상무선은 총사업비 692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다. 노선은 도시철도 1·2호선 환승역인 상무역에서 출발해 시청, 기아차 광주공장,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을 거쳐 광주역 후문까지 이어지는 7.78km 구간이다.

그동안 광주천을 사이에 두고 단절됐던 상무지구와 구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 노선은 광주의 교통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광천권역은 터미널과 백화점이 밀집해 있어 평소에도 차량 흐름이 더딘 곳이다. 여기에다 오는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더현대 광주'와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 등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교통 대란이 우려됐었다.

광주시는 광천상무선이 완공되면 승용차 없이 도대량 수송이 가능한 지하철이 이 지역을 관통하게 돼, 쇼핑몰 방문객과 야구 관람객 등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지하철 1호선(상무역) 및 2호선, 그리고 광주역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광주 전역의 대중교통망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국토부 고시가 이뤄지는 대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신청하고,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사회단체 교육감 단일후보 정성홍 "시민 눈높이로 교육 설계"

후보 단일화 경선 1위

광주지역 사회노동단체들이 중심이 돼 활동 중인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후보시민공천위원회'는 11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단일후보로 정성홍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을 선출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공천위원회는 광주교육감 선거 입지자인 정성

홍·김용태·오경미 등 출마예정자 3명을 상대로 지난 7~10일 시민공천단 전자투표와 3차례의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득표율을 5대5로 합산한 결과 1위를 차지한 정 전 지부장을 공천후보로 결정했다.

정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두 후보님과의 경선은 승패를 가르는 다툼에 앞서 광주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었다"며 "교육의 권한·재정·인사·자율성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통합의 시대 전남의 교육 주체들과 손잡고 더 넓은 연대 더 큰 교육 자치 공동체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현장에서 제도를 통해 정책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74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2026-1 광신대학교 평생교육 PROGRAM

수강생 모집

접수기간

2026. 1. 12.(월) ~ 2. 13.(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중앙도서관 1층 교학처),
이메일 신청(gsu23417@naver.com)

교육문의

062)605-1023, 1063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 대 학 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6

● 지원자격 : 세례교인 이상으로서 담임 교역자 추천을 받은 자

*단, 전문인 사역자 과정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3월 초 개강

색채심리상담 전문가 양성과정 _화 9:00

아로마 테라피스트 과정 _월 10:30

파크골프 지도자 2급 과정 _금 9:00 / 토 9:00

흥미만점 영어회화 _금 14:00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3월 2일 개강, 현재 모집중

2년 4학기 [주 2일 야간]
(월·대연/화·비대연)

여전도사 과정

증직자 과정

평신도 사역자 과정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www.kwangshin.ac.kr

▶ 문의 062)605-1023, 1063